



주 제:	“성소주일”	“부활 제 4 주일” (다해)	2007년 4월 29일
복음 묵상:	요한 10,27-30	사도 13,14.43-52	묵시 7,9.14 L-17

오늘 우리는 부활 4 주일을 성소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성소주일은 교회생활과 사명에 성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훌륭한 성소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드리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또한 오늘은 착한 목자이신 주님께 일생을 바칠 젊은이들, 사제와 수도자를 꿈꾸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선익과 발전을 위한 사제와 수도자들의 존재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신앙인 모두는 참되고 정성된 맘으로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성소자들을 위해 물질적 정신적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사람들 가운데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는 이들이 자신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의 무능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로서 오로지 주님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는 양이 되도록 기도드립니다. (전주 이원철 신부님)

### 성가대 소식

#### 1. 축입단 환영

최효훈 토마스형제님이 성가대 가족으로 주님께 봉사하고자 새로 입단하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따듯이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 가족 동정

- 최효훈 도미니카 자매님 4/24 2 주간 여정으로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 윤안도 요셉 형제님 금주 LA 를 거쳐 4/24 일 3 주간의 여정으로(5/15) 서울로 떠나셨습니다.
- 조병화 솔로몬 형제님 4/20(금) 3 개월 예정으로 한국으로 나머지 정리 차 떠나셨습니다.
- 구영조 요한 형제님 5 월 중순경 한국으로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말없이 입단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불연듯 떠나시게 되어 모든 가족들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행중이신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문성호 요셉 형제님과 멜라니아 자매님 집 이사관계로 금주까지 나오시지 못합니다.

#### 3. 기도 요청

- 천 꼬플랭코 수녀님 영명축일을 맞습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길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영명축일을 축하드립니다.**
- 김 안토니오 신부님 5/3 까지 선교지 방문중에 제십니다. 건강히 돌아오시길 기도합니다.
- 김 인숙 세실리아 자매님, 심한 기침 알레지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중에 빌어주십시오.

+ 복음 [요한 10,27-30]

